



おすすめの 食&おみやげ

トサン品

지노이케 연고

지노이케 지역에서 솟아
나오는 점토로 만든
피부병에 효과가 좋은 연고.
일본 전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지역 푸딩
계란, 우유, 설탕만을 사용하여
우미 지역의 온천수로 끈 푸딩.



입욕제

마그마 온천/우미 지역의
온천수를 특수 순간건조법
으로 분말화한 것.

(우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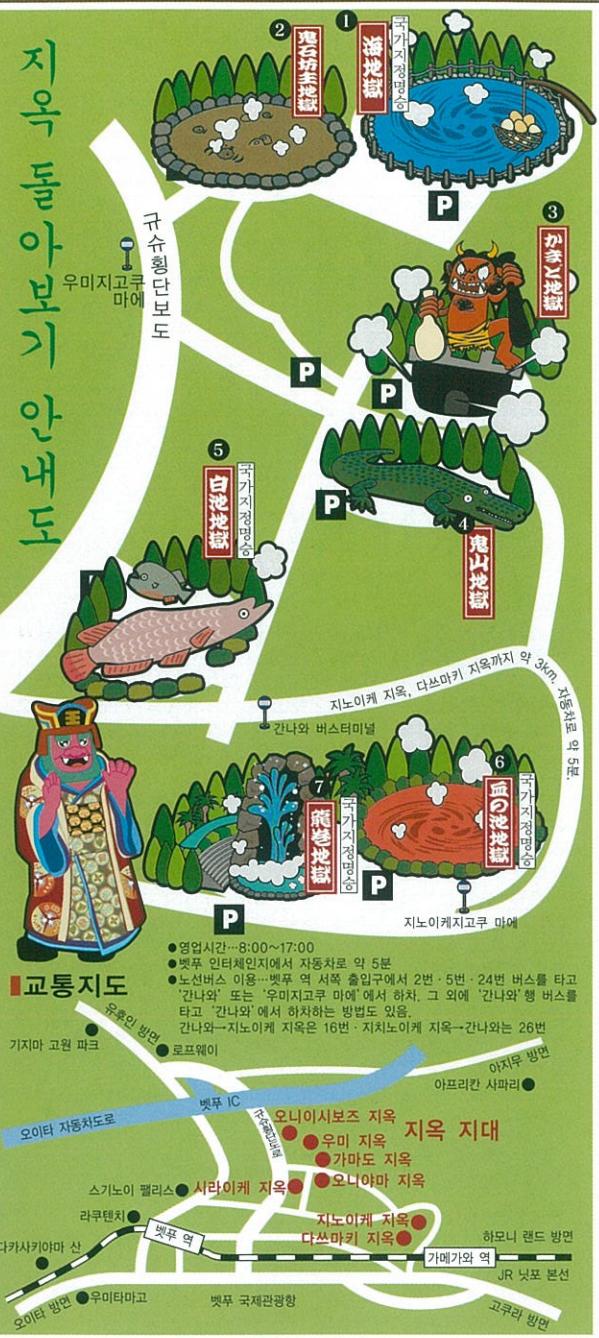
보리소주

캬보스·자몽
캬보스는 우미 지역에서 8월
하순부터 10월 말까지,
자몽은 다쓰마키 지역에서
12월 하순부터 3월 말까지
기간 한정판매.

지역모자 티셔츠

(지역마다 판매)

단고지루
오이타의 대표적인
향토음식.
(레스토랑 우미)



벳푸 지역 돌아보기

よこそ 一 地 獄

別府地獄組合

TEL(0977)66-1577(代) FAX(0977)66-7921
<http://www.bettu-jigoku.com/>

④ 鬼山地獄



오니아마라는 지명에서 유래한 오니아마 지옥은 일명 '악어 지옥'이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23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온천 열수를 이용하여 악어 사육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100마리의 악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온도 98도.



분출 시에는 무색투명한 열탕이지만, 물이 뜸으로 페어지면 온도와 압력의 저하로 인해 청백색으로 변합니다. 공원 내에는 온천물을 이용하여 각종 대형 열대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온도 95도, 봉산식염선 혈류.



펄펄 끓어오르는 점토는 수증기마저도 빨간색, 분고풍토기애 '아카유노 이즈미'라 기록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천연 지옥입니다. 이곳에서 얻은 빨간 점토로 피부병에 잘 드는 '지노이케 연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온천수 온도 78도.



벳푸시 지정 천연기념물인 '간협천', 간협천은 일정한 간격으로 열탕과 수증기를 분출합니다. 전 세계의 간헐천 중에서도 뿐만 아니라 시간 간격이 짧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옥 명칭의 유래

이곳 간나와·가메가와 지옥 일대는 천년 이상의 오랜 옛날부터 뜨거운 수증기·진흙·열탕 등이 분출되고 있었음이 '분고풍토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불길한 토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지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간나와 지방에서는 온천 분출구를 「지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地獄讃 誌 지옥

단테나 밀턴, 블레이크 같은 사람들이 묘사한 천국은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다. 그런데, 지옥편으로 가면 정말로 유쾌해진다. 거기에는 살아 있는 자가 겪는 참혹함이 유감없이 표현되어 있어서, 나 같은 건 극락보다는 지옥으로 가고 싶다. 위대한 시인이나 작가에 의해서 묘사되어 있는 천국이나 지옥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섭지도 않고 부러울 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베푸를 여행하고 있으면 팔대지옥이 바로 우리 눈 앞에 있다. 이것은 확실히 무서운 지옥과 다름이 없다. 열탕이 분출하고, 울렁울렁 땅이 울리고 살아 있는 거대한 악어가 수없이 꼼질거리며, 귀신만 눈에 안 보인다뿐이지, 한번 미끄러지면 순식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지옥에서 끊고 있는 가마솥보다 더 뜨거울 거라 생각하니 지옥에 가고 싶다는 근성같은 건 다 없어진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삶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에 베푸의 지옥에 떨어진 여러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을 오히려 권하고 싶다. 지옥을 떠져나가 되살아난 인간 이야기로 진짜 인간이기 때문이다.

今 東光 Kon Toukou

작가, 승려.
1957년 나오기 상 수상

【국가지정명승】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의 한 종류. 특히 '명승'이란 뛰어난 명승지를 의미하며 온천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미, 지노이케, 다쓰마키, 시라이케 4개의 지옥이 선정되었습니다.

① 海地獄

신비롭고 시원한 느낌의 코발트색 언뜻... 계속 보고 있으면 마치 바다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온도가 섭씨 98도나 되는 열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쓰루미다케 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 형성된 열탕입니다. 분고풍토기에 적혀 있는 '구배이유'에 해당합니다.



② 鬼石坊主地獄

갯빛 진흙이 끌어오르면서 크고 작은 구형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삽발한 스님의 머리를 닮은 점과 오니이시라는 지명에서 이름을 따서 오니이시보즈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③ かまど地獄



옛부터 고장의 조상신을 모시는 가마도 하치만구 신사 대축제 때 지옥의 수증기로 밥을 짓어 신전에 바치는 풍습에서 가마도 지옥이라는 이름이 유래하였습니다. 맹렬히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와 함께 뜨거운 온천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온천수 온도 90도.